

# 동아쏘시오홀딩스 '26년 1분기 실적발표 스크립트

## '26년 1분기 연결실적

- '26년 1분기 연결 매출은 주요 사업회사인 동아제약(10.5%), 용마로지스(9.6%) 등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3,510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대외 이슈 영향 등으로 사업회사들의 원가율이 상승하여 6.0% 감소한 191억원 기록.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도 영업이익 감소 요인.

---

## 동아제약

- '26년 1분기 매출은 박카스부문(11.0% yoy)과 일반의약품부문(17.3% yoy) 성장 주도로 10.5% 증가한 1,880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이슈로 원자재비와 환율이 상승하여 원가율이 높아졌음에도 판관비의 효율적 집행과 전년 동기 기저효과로 22.1% 성장한 206억원 기록. 최근 4월초 글로벌 일반의약품 브랜드 4종 돌코락스, 알레그라, 뮤코펙트, 부스코판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을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와 계약. 이를 통해 상비약 카테고리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자사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일반의약품 넘버원 회사의 입지 강화. '26년 동아제약은 얼박사 매출 증가를 통한 박카스부문 성장과 피부외용제 3종 성장, 글로벌 제품 도입 등으로 일반의약품부문 성장을 통해 연간 매출 작년 성장 수준 이상 성장 가능.
-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26년 1분기, 박카스부문은 지난해 6월에 발매한 신제품 얼박사의 판매 호조와 작년 3월 가격인상 효과로 11.0% 성장. 얼박사는 총매출기준 1분기에 101억 원 판매. 또한 3월말에는 얼박사 제로 출시. '26년 박카스부문은 지난해 가격인상에 따른 수량 감소 회복과 얼박사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성장, 얼박사제로 발매 등으로 5% 이상 성장 예상.
- '26년 1분기, 일반의약품부문은 판피린, 챔프 등 주요 브랜드 라인업 확대 및 신제품 발매로 17.3% 성장. 피부외용제도 지속 성장 중. 전년대비 3.8%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25년 4월 애크브랜드 가격인상으로 1분기 가수요 발생에 따른 기저. 주요 브랜드 노스카나 71억원(28.3% yoy, '25년 240억원), 애크논/린 60억원(-35.8% yoy, '25년 255억원). 멜라토닝/노사 57억원(76.7% yoy, '25년 185억원). 멜라토닝은 최근(4월) 전지현 모델을 발탁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 진행. 색소침착치료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입지 강

화 기대. '26년 일반의약부문은 지속적인 피부외용제 성장과 신제품 발매, 그리고 오펠라헬 스케어의 글로벌 브랜드 4종 도입으로 두 자릿수 성장 예상.

- '26년 1분기, HTC(생활건강)부문은 건강기능식품시장 침체, 소비 둔화 영향으로 2.1% 감소. 가그린 브랜드 라인 신제품 듀오버스터, 가그린스프레이와 마시는 콜라겐 아일로의 성장은 긍정적. '26년은 오쏘몰 브랜드는 SKU 다변화, 라인업 확장,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재성장하고 신제품 출시 및 성장으로 5% 내외 성장 계획.
- 더마 파티온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 잡으며 13.5% 성장한 63억원 달성. '25년 10월 다이소 출시, 지난 1월 국군복지단 입점 등 지속적으로 유통 채널 확장하며 트러블 기능성 화장품의 자리를 잡아 감. 또한 최근 3월 중순 신제품 동아제약 프로 브랜드 런칭, 매출 성장 기대. 해외는 중국, 일본, 미국 중심으로 인플루언서(KOL) 및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추진 중. '26년 더마사업 국내는 신제품 기반 및 유통 채널 확대로 지속 성장하고 해외는 새로운 전략 및 마케팅으로 성장 목표.

## 에스티젠바이오

- '26년 1분기 매출은 고객사 발주 일정에 따라 5.7% 감소한 180억원 달성. 매출 시점 차이에 대한 감소로 연간 계획대로 진행 중. 기존 상업화 품목 매출 외 신규 수주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긍정적.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89.1% 감소한 2억원 기록. 에스티젠바이오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MO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생산시설확장을 위한 1,090억원 투자 결정(2/26). 바이오리액터 5,000L, 하베스트 라인 1기, 아이슬레이터 1기 등 추가 증설을 통해 연간 DS 생산배치능력은 44%, DP 생산배치능력 170% 증가. 수주 계약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공시를 통해 총 3건 211억원의규모의 수주계약 발표. 70억원(3/10), 66억원(3/16, 알테오젠), 75억원(4/17).
- 최근 시장 환경은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및 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 추진 등으로 글로벌 CMO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춘 에스티젠바이오에게 우호적 환경 조성. 특히 단일사이트에서 DS와 DP(PFS)를 GMP 역량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로써,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고객사 유치 가능.
- '26년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로, 시설투자와 글로벌트랙레코드 확장, 이익향상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연간 10% 내외 성장 예상.

## 용마로지스

- '26년 1분기 매출은 적극적인 주력산업군 신규 화주 유치와 물류 영역 확대로 9.6% 증가한 1,106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이슈로 유류비와 물류 부자재비 등이 상승해 원가율이 높아져 10.4% 감소한 38억원 기록. 용마로지스는 정온 인프라 고도화로 주력사업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신산업군 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 또한 '27년 하반기 신허브센터 완공을 통해 지속성장 로드맵을 구축. '26년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영업이익은 대외변수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보수적 성장 예상.